

제주 해군기지 막아내어 강정마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킵시다!



제주해군기지예산삭감2009인 평화행동에
함 께 해 주 세 요

예산삭감이유?

1.입지타당성 없어 2.대국민사기극 3.법적기준 미달 4.알고보니 미군기지 5.안보와 평화위해

1 예산삭감 이유

태풍 볼라벤이 증명했다! - 입지타당성 없어!

2



2012년 3월~ 9월 강정바다에 투하된 케이슨 7동이 모두 태풍 볼라벤으로 파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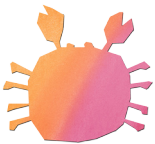


제주도 남쪽 지형중에서도 바다쪽으로 튀어나온 강정은 파도가 높고 조류가 센 곳이다. 태풍으로 케이슨이 파손된 것에서 보듯 강정은 대형 항구가 들어설 수 없다. 게다가 양쪽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멸종 위기 연산호 서식지역이 있어 입지조건이 협소하다.

원래는 이렇게 네모반듯한 케이스
케이스는 가로 20미터, 세로 20미터,
높이 20미터로 방파제의 기본구조물.



강정은 해군기지가 들어올 수 없는 곳



해군은 애초부터 작은 항구만 들어올 수 있는 강정 앞바다에 대형 군함 20척이 계류하는 해군기지를 짓고자 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15만톤 크루즈 2척이 들어오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대선공약을 내걸며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더욱 꼬여만 갔다. 해군도 "제주 남방 해역은 기본적으로 지형상 천연기념물, 기후 조건 등으로 대형 해군기지 들어서기에는 불리한 지형조건이다. (해군, 기본계획 보고서 (2009.4.))"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2 예산삭감 이유 국회 완전 무시 - 사기당한 국민들

국회 예결위 부대조건 위배(2007.12)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

** 당시 예결위 위원장 원혜영 의원은 “‘민군복합형 기항지’의 성격은 크루즈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하고 해군이 필요한 경우 일시정박해 주유나 물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민항이 주된 기능임을 밝힘.

4

국회 예결위 권고사항 위배(2011.11)

2011년 국회 예결위 해군기지 조사소위는 15만톤 크루즈 두 척의 입출항 안정성에 대해 제3기관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총리실과 해군은 ‘선회장 등이 법적 기준에 미달된다’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삼성물산이 발주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그대로 채택,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2012년 10월 18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의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항만설계 오류가 매우 심각하나, 그동안 해군은 거짓 해명으로 설계오류 은폐를 시도해 왔다”

“선회장, 항로 등이 법적 기준에 맞춰 설계되었는지,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해군은 제주도가 요구하는 시뮬레이션 케이스를 수용해야 한다. 이것은 국회가 정부에 권고한 5가지 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써 만일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해군기지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3 예산삭감 이유

민항도 군항도 불능-선회장, 항로 법적 기준 미달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미달 선회장,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위험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르면 항만의 선회장 규모는 자력에 의한 회전의 경우 3L, 예인선과 스러스트 사용시 2L로 규정하고 있다. (L은 배의 길이) 15만톤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입·출항과 접·이안을 할 수 있으려면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라 선회장이 최소 690m가 되어야 하지만, 현 선회장의 크기는 520m에 불과해 법적 기준에 미달된다. 이대로라면 크루즈선박이 접·이안할때 항로를 이탈하거나 부두나 방파제와 충돌 할 가능성이 높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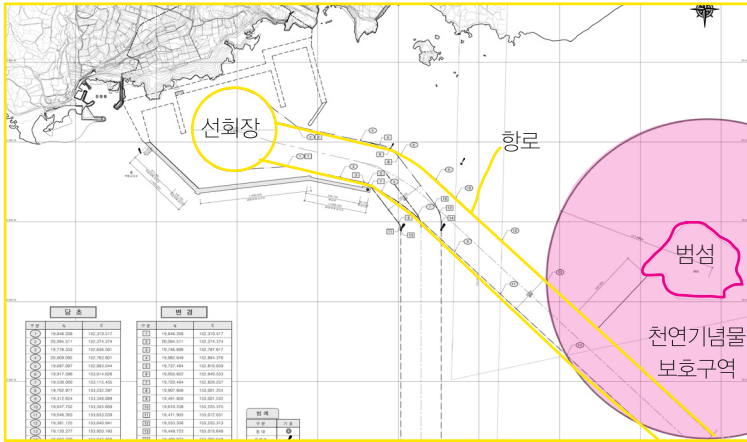
15만톤 크루즈선 정박시 대형 군함 입출항 어려워, 군항기능 못해

응답빈도		쉬움		보통			어려움		평균
		1	2	3	4	5	6	7	
		매우쉬움	쉬움	다소쉬움	보통	다소어려움	어려움	매우어려움	
대형함정	입항	-	-	-	-	-	-	Case1 Case2	7.0
	출항	-	-	-	-	-	Case7 Case8	-	6.0

해군이 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대형 군함은 출입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군이 의뢰한 운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형 함정 운항 난이도가 최악의 경우인 ‘매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사고 위험조차 무시하면서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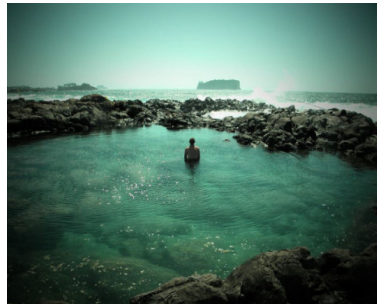
“해군은 크루즈선은 커녕 군함마저 입출항에 문제 있는 황당무계한 사업을 강행하는 역지를 부리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강정일, 주승용, 장세환) (2011)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침범하는 항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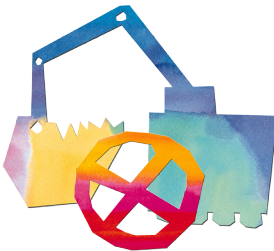


2012년 9월 해군이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 보고한 해군기지 평면도는 항로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과 생물권 보전지역을 분명히 침범하고 있다.

해군본부가 2009년 1월에 작성한 '기본계획 보고서' 에도 "사업대상지 주변의 천연기념물 등 보호 구역 및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과 수심 10m이하의 저수심대에 의한 제약" 을 명시하고 있다.



구럼비에서 바라본 범섬 (20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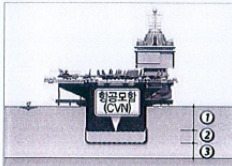
15만톤 크루즈나 대형 군함들이 안전하게 입출항 하려면 법적 기준에 맞게 선회장과 항로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대규모로 설계가 변경될 수 밖에 없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지금 작업 중인 케이슨이나 삼발이 등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다.

4 예산삭감 이유

알고보니 미군기지 - 미군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위한 설계

제3편 기본설계 검토

1 부두 계획수심



설계기준 고려
① 만재흘수 D=11.5m
② 항내파랑의 영향=1.0m
③ 대기압 영향=0.5m
∴ 부두 계획수심 = 11.5+1.0+0.5=13.0m 이상

경험식 적용
•Swell 등을 고려하여 만재흘수의 15% 고려(PORT DESIGN, p52)
•부두 계획수심 = $D \times 1.15 = 14.95m$ 이상

설계적용 **•CNFK 요구조건(DL.(-)15.20m)을 만족하는 DL.(-)17.40m로 계획**

8

국방군사시설기준 - 선회장 적용기준

구 분	조 건	선회장 소요직경		
		대형선 (KDX-III)	중형선 (PCC)	항공모함 (CVA)
자력에 의한 회두	3L	480m	270m	-
예인선에 의한 회두	2L	-	-	-
지형 등으로 부득이하게 예인선을 이용하는 경우	1.5L	-	-	520m

제5편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1.2 과업의 내용 및 범위

- 본 과업에서 수행된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표 1.2.1>과 같음.
- <표 1.2.1> 과업의 내용 및 범위

과업 내용	세부 내용
대상 해역	• 제주 해군기지 해역 및 그 접근항로 일원
대상 선박	• 15만 GT급 여객선 및 CVN 65급 항공모함
	• 선행 요연자료 조사 및 분석

- 미국 핵항공모함의 안정적 계류를 위해 주한미군 해군사령관(CNFK)의 요구 기준에 따라 방파제 내측 수심을 17.40m로 설계 (대한민국 해군, 08-301-1 시설공사 7편 조사 및 실험보고서)
- 미 대형 핵잠수함(홀수 9.5m 안팎)이 드나들 수 있도록 잠수함 계류부두의 수심을 12m로 설계

- 제주해군기지의 선회장 지름(520m)도 국방군사시설 기준으로 15만톤 크루즈 선 대신 길이 342.3m의 미 항공모함 CVN-65급(엔터프라이즈 호)의 약 1.5 배로 설계 (제주의소리, 2011.9.23)

- “제주 해군기지 서방파제에는 15만GT 급 여객선이, 남방파제에는 CVN-65 급 항공모함이 입·출항 및 접·이안을 할 예정” (대한민국 해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조사 및 실험보고서(II)(1공구), 제5편 선박조종시물레이션) 이라고 아예 미 항공모함이 드나들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음



5 예산삭감 이유

강정 공동체 회복과 국가안보, 평화를 위한 결단



사진 : 한겨레 류우종 기자



제주해군기지에 미 항모가 드나들면 중국을 자극하여 제주도와 한반도는 동북아 군사적 충돌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되고 우리가 얻는 것은 안보불안 뿐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전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건설하여 미군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게 될 제주해군기지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파괴된 구럼비 바위는 전체 면적의 16%, 공사 진행율은 20%에 불과합니다. 이미 국회는 2012년 해군기지 예산의 96%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2013년 해군기지 예산 2009억원을 완전 삭감하고 해군기지를 백지화 할 평화대통령을 뽑아 강정과 한반도 평화를 지킵시다.



2009명 평화행동 인증샷에 참여해 주세요. (1명이 1억씩 삭감시켜요!)
국회앞 릴레이 1인시위와 할망물 다방에 참여해 주세요(11월 1일부터~)
한겨레 전면 광고에 참여해 주세요

: 예산 삭감! 공사 중단! 평화대통령 원해요! (1차 11월 말, 2차 12월 초)

예결위원회 의원들에게 요구해요

위원장 새누리당 장윤석 (경북 영주) yschang49 (미투데이)

간사 새누리당 김학용 (경기 안성) @Kimhackyong (트위터)

간사 민주통합당 최재성 (경기 남양주) @withjs21 (트위터)

** 전체 위원명단은 <http://budget.na.go.kr>

국방위원회 의원들에게 요구해요

위원장 새누리당 유승민 (대구 동구) @hannaraysm (트위터)

간사 새누리당 한기호 (강원 철원인제) @nomb01 (트위터)

간사 민주통합당 안구백 (서울 동대문) @agbhope (트위터)

** 전체 위원명단은 <http://defense.na.go.kr>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해요

박근혜 @GH_PARK (트위터)

문재인 @moonriver365 (트위터)

안철수 @cheolsoo0919 (트위터)



1994년에 창립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000여 회원들의 회비로 100% 운영되는 비영리 사회운동단체입니다. 한반도의 확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위해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와 균축을 위한 평화활동, 남북의 하나됨과 화해 상생을 위한 통일활동, 인권, 생명, 노동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해 강정 지킴이로 공사 저지하기, 각 지역에서 강정촛불 진행하기, 예산 삭감운동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02_711_7292 | spark946@hanmail.net | @spark946 | www.peaceone.org | 농협 539-01-145822 문규현